

이 보도자료는 2024. 3. 20. 10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이만흠 전화 02-2204-4201</p>	2024. 3. 20.(수)
		주책임자 : 합동수사단장 자료문의 : 합동수사단 전화 : 02-2204-4963

「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」
역대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 적발
 - 조직원 21명 구속기소 및 중계소, 부품보관소 등 15개소 적발, 변작중계기 1,694대 압수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(제10조 제1항 제3호)
 -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0조 제2항)

-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(단장 김수민)은 『중국·태국·남아공 등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규모의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중계기* 운영조직』을 적발하여, 단순 중계기 관리책뿐 아니라 간부급인 수당지급책, 부품보관소 관리책, 환전책 등 총 21명을 검거하여 구속기소하였습니다.
- *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는 여러 개의 유심칩을 장착하여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로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해외에서 온 전화를 국내에서 온 것처럼 변작하는데 이용
- 합수단은 점조직·분업화된 다국적 중계기 운영조직을 수사하여,
 - ① 범행에 사용된 계좌추적, 휴대폰 포렌식분석, 원룸촌 현장수사, 출입국 자료 분석, 국정원 협력 등을 통해 중국 연길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조직과 함께 피해자 170명으로부터 합계 약 54억원을 편취한 중계기 운영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고,
 - ② 면밀한 증거분석으로 일반 원룸으로 위장되어 있던 중계소 11개소, 부품보관소 4개소 등을 적발하고,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1,694대(784회선), 휴대전화 유심 8,083개, 휴대폰 443대, PC 121대, 공유기 193대 등을 현장에서 압수하여 실시간 범행을 차단하였으며,
 - ③ 조직원 진술분석, 중계기 포렌식분석 등을 통해 조직원들조차 알지 못했던 중국 소재 총책 및 간부급 조직원들의 신원을 밝혀내고, 긴밀한 국제공조로 이들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.

- 합수단은 출범(22.7.29.) 이후 총 433명을 입건하여 150명을 구속하였고, 합수단 및 범정부적 노력 결과, '22년도 보이스포싱 피해금액은 5,438억원으로 '21년도(7,744억원) 대비 약 30% 감소, '23년도 피해금액은 4,472억원으로 전년 대비 다시 약 18% 감소하여 2년 연속 대폭 감소하였고, '18년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,000억원대로 내려왔습니다.

※ 보이스포싱 피해액(억원) : 4,040('18)→6,398('19)→7,000('20)→7,744('21)→5,438('22)→4,472('2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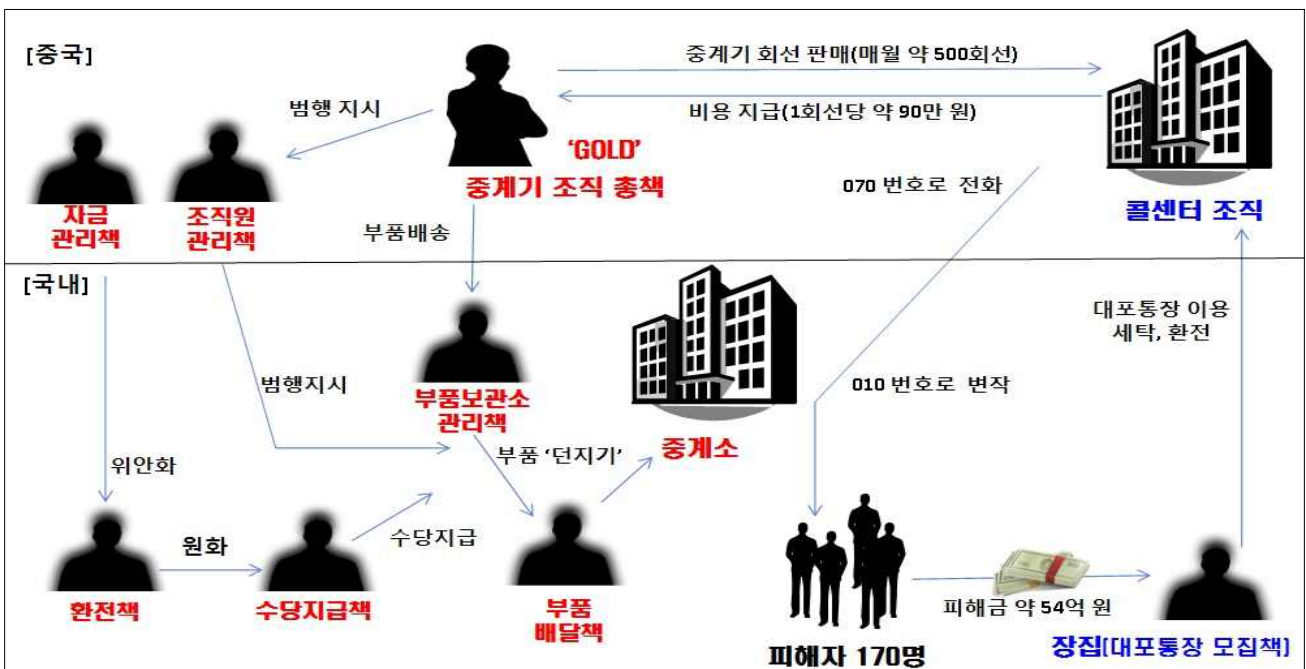
- 앞으로도 합수단은 보이스포싱 범죄를 엄단하고 신종수법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각종 예방과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보이스포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I 공소사실 요지 및 사건 개요

- 피고인들(총 21명)은 '23. 5.~'24. 3. 총책(일명 'GOLD')이 조직한 보이스포싱 중계기 운영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, 수당지급책, 부품보관소 관리책, 중계기 관리책, 환전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콜센터 조직과 함께 수사기관,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'계좌의 범죄 연루', '저금리 대출'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총 170명을 속여 합계 약 54억원을 편취 [범죄단체가입·활동, 사기,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]

※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는 별첨 표 참조

[조직 구조]



[보이스피싱 조직의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의 국내 설치]

- ▶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두지만,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(070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)로 걸려오는 전화는 잘 받지 않음
- ▶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람들이 전화를 잘 받는 '010' 번호를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, 해외에서 '070' 번호로 발신한 전화를 국내에서 '010' 번호로 연결·변작해주는 통신장비(일명 '중계기')를 국내에 설치함
- ▶ 혹은 해외에 있는 태블릿과 국내에 있는 휴대폰을 연동시킨 후 '다른 기기에서 전화하기 기능(CMC 기능)'을 통해 휴대폰을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에서 '010' 번호로 범행을 함
- ▶ 결국, '010' 번호가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표시되기 위해서는 최종 단말기인 중계기는 국내에 있어야 함(해외 로밍은 중계기에 비해 많은 비용 발생)

II

주요 수사 경과

- '23. 9. 합수단, 원룸촌 현장수사, 범행사용 계좌추적,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등 수사착수
- '23. 10. 17. 중계소 5개소 압수
- '23. 11. 13. 조직원 G, H, I 구속기소
- '23. 12. 5. 조직원 J, K, L 구속기소
- '24. 1. 2.~25. 중계소 2개소, 부품보관소 1개소 압수
- '24. 1. 26. 조직원 A, B, M 구속기소
- '24. 2. 1. 중계소 1개소 압수
- '24. 2. 7. 조직원 E, F 구속기소
- '24. 2. 16. 조직원 N, O, P 구속기소
- '24. 2. 19.~3. 6. 중계소 3개소, 부품보관소 3개소 압수
- '24. 3. 7. 조직원 D, Q 구속기소
- '24. 3. 15. 조직원 C 구속기소
- '24. 3. 20. 조직원 R, S, T, U 구속기소

※ 총 21명 구속기소, 해외 체류 총책 및 간부급 조직원 계속 추적 중

1] 간부급 조직원을 포함하여 조직원 21명을 구속하고 그동안 확인되지 않던 중국의 총책 신분을 밝혀내는 등 중국 연길을 거점으로 한 다국적 보이스포싱 중계기 운영조직의 실체를 밝힘

- 국내에서 범행 중인 다국적 중계기 운영조직을 포착한 후 간부급인 수당 지급책을 비롯하여 부품보관소 관리책, 중계기 관리책, 환전책 등 국내 조직원 총 21명을 검거하여 구속기소하고,
 - 조직원 진술분석, 중계기 포렌식분석 등을 통해 조직원들조차 텔레그램 대화명으로만 알고 있는 등 철저히 신분을 숨겨온 중국 소재 총책 및 간부급 조직원의 특징에 성공하여 보이스포싱 중계기 운영조직의 실체를 규명함
 - 총책은 중국인(조선족)으로, 중국 연길에서 자금 관리책, 조직원 관리책 등과 함께 중계기 운영 범죄집단을 조직하고,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해 국내 조직원을 모집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
 - 중국, 태국, 남아공, 아이티 출신의 국내 조직원은 중계기 관리책 외에도 환전책, 수당지급책, 부품보관소 관리책, 유심보관소 관리책, 부품배달책 등으로 구성되는 등 철저히 분업화됨
- ※ 수당 지급을 '환전책 - 지급책' 으로 이원화하고, 중계기 부품관리에 있어서도 '부품관리 - 부품배달 - 부품 조립·중계소 운영'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전문적이고 점조직화되어 있음

- ▲ **환전책** : 자금 관리책으로부터 중국 계좌·위챗페이로 위안화를 송금받아 같은 금액의 원화를 수당 지급책에게 전달(일명 '환치기')
- ▲ **수당지급책** : 조직원에게 매주 1회씩 수당을 전달
- ▲ **부품보관소 관리책** : 총책으로부터 배송받은 중계기 부품을 보관, 포장하여 부품배달책에게 전달
- ▲ **유심보관소 관리책** : 부품배달책으로부터 공유심을 전달받아 일련번호 정리, 공유심이 개통되면 부품배달책에게 전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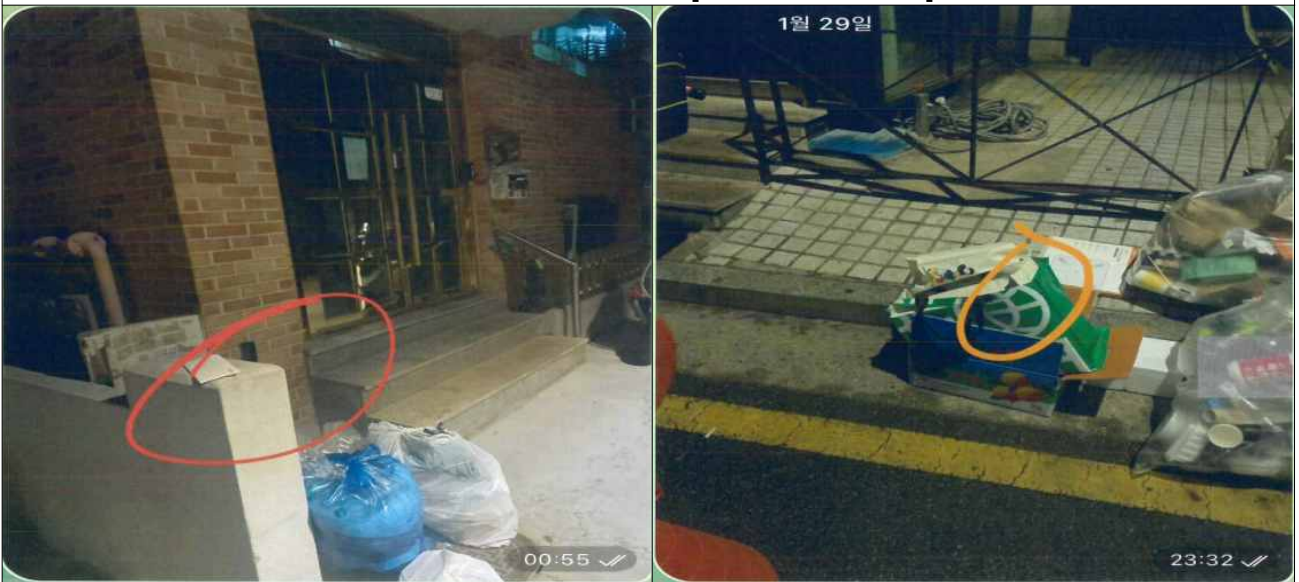
- 국내조직원은 가담기간에 따라 「부품배달→유심보관소 또는 중계기관리→부품보관소 관리」 순으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였고, 업무에 따라 매주 50~10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음

② 더욱 철저히 점조직화하고 진화하는 범행수법에 대응하여 디지털 자료분석, 현장수사, 협력수사 등 전방위적 수사로 국내조직 와해

- 조직원들조차 서로를 모르게 하여 추적을 방지하고, 수사가 시작되자 수당까지도 '던지기' 방식*으로 전달하는 등 범행 방법을 진화시켰으나 조직원 조사, 텔레그램 대화내역 및 휴대폰 포렌직분석, 잠복수사, 국정원과 협력 등 끈질긴 수사로 국내 조직원을 일망타진함

* 던지기 : 우편함, 분전함 등에 물건을 놓아두고 수취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전달방식으로 통상 마약류 판매에 사용됨

수당 및 부품 던지기[텔레그램 사진]



[범행수법]

- ▲ 조직원 숙소와 중계소를 분리, 조직원 1명이 숙소 1개 및 중계소 1~2개실을 사용, 중계소에서는 음식 배달·흡연·소란 금지 등의 행동강령을 지시
- ▲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범행지시를 하고 대화내용은 주기적으로 삭제
- ▲ 중계기부품, 대포유심 등 범행도구를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
- ▲ 수사초기에는 수당 및 원룸 임차료를 계좌로 지급하였으나, 조직원들이 순차 검거되자 수당 및 비용을 던지기로 전달하고 원룸 임차료도 조직원이 직접 납부하도록 하였으며, 1개월 간격으로 숙소와 중계소를 이동시키고 간부급 조직원들의 텔레그램 대화명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범행수법 진화

- 초기에는 조직원으로 조선족을 모집하였으나, 합수단 등 수사기관의 수사와 보도 등으로 조선족 조직원 모집이 어려워지자 '숙소 제공, 고액의 수당' 등을 제시하며 국내에서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태국인, 남아공인 등을 모집함
 -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 또는 난민으로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, 원룸촌 CCTV 영상 및 압수한 원룸 임대차계약서 분석, 외국인 출입국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신속하게 국내 조직원을 특정하여 전원 검거함
- 일부 조직원은 다른 조직원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후 도피하였으나, 최종 통화내역, 카드사용내역, 택시 이용내역 분석 등을 통해 도피지역을 찾아내고 주변 탐문 및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함

③ 중계소 및 부품보관소를 신속히 특정하고 중계기 1,694대, 유심 8,083개 등을 압수하여 현재 진행 중인 범행을 중단시키고, 추가범행을 방지

- 중계기 부품을 '던지기' 방식으로 전달하고, 조직원 숙소와 중계소를 분리하는 등 중계소 위치 파악을 어렵게 하였으나, 범행에 사용된 계좌 거래내역, 텔레그램 대화 및 포털사이트 접속내역 등을 분석하여 신속히 중계소 11개소 및 부품보관소 4개소 등을 특정하고,
 - 작동 중이던 중계기 642대(784회선)를 포함한 중계기 1,694대, 대포유심 3,420개, 공유심 4,663개, 휴대폰 443대, PC 121대, 공유기 193대 등을 압수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범행을 즉시 중단시키고, 추가 범행을 방지하였으며,
 - 중계기를 설치 중이던 원룸을 압수수색하여 범행 시도를 사전에 차단함
- ※ 중계소 및 부품보관소 사진은 별첨2 참조
- 사용중지된 중계기 784회선의 월 사용료는 7억원 상당에 달하고, 압수된 중계기, 대포유심 등 범행도구는 약 16억원 상당으로 중계기 운영조직 및 콜센터조직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가함

<참고>

- 합수단 출범 및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TF를 구성하여 대응한 결과, '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5,438억원으로 '21년(7,744억원) 대비 약 30%(2,306억원) 감소하였고, '23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4,472억원으로 전년 대비 다시 약 18% 감소하여 2년 연속 대폭 감소하였으며, '18년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,000억원대로 내려옴

<출처 : 경찰청>

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피해금액(억원)	4,040	6,398	7,000	7,744	5,438	4,472
발생건수(건)	34,132	37,667	31,681	30,982	21,832	18,902

※ 최근 '금융감독원'은 '23년 피해금액이 1,965억원으로 전년(1,451억원) 대비 약 35%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이는 금융권으로 접수된 지급정지신청을 통해 확인되는 계좌피해내역에 한정된 것이며, 이에 비해 경찰청 통계는 금감원 통계를 포함하여 피해신고 접수내역, 계좌피해내역, 대면형 및 비대면형 편취 등 모든 피해내역을 통계에 반영하고 있음(즉,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통계상 대폭 감소하였음)

- 합수단은 출범('22. 7. 29.) 이후 총 433명을 입건하여 150명을 구속

<주요 수사 사례 >

▲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 등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

- 동방파 두목 및 칠성과 행동대원 등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 등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하여, 국내외 총책 등 총 30명 입건, 9명 구속 기소
- ※ '22.12.1.자 [마약사범, 조직폭력배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결과] 보도자료 참조

▲ 암장될 뻔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적발

- 조직원들 일부가 체포되었다가 증거부족으로 석방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총책 등 조직원 27명 입건, 전국으로 흩어져 도주한 조직원 20명을 검거하여 기소(19명 구속)
- ※ '23. 12. 27.자 [암장될 뻔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일망타진] 보도자료 참조

▲ 대표통장 및 대표유심 유통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

- 대규모 대표통장 유통조직의 총책과 대표통장 개설에 가담한 은행원, 경찰 사건 무마 청탁 브로커 등 총 24명 입건, 12명 구속 기소
- ※ '23.7.13.자 [보이스피싱 조직 연계 대규모 대표통장 유통조직 적발] 보도자료 참조
-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대표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을 포함한 조직원 6명을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6개 대표통장 및 대표유심 유통조직의 조직원 23명을 구속하고,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음

▲ 전문·분업화된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표시변작 조직 적발

- 국내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, 무선라우터·대표유심 유통 총책, 이동통신 대리점 업주 등 총 25명 입건, 20명 구속 기소
- ※ '23.7.25.자 [전문·분업화된 발신번호 표시변작 조직 엄단] 보도자료 참조
- 계속하여 본건 수사로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 조직원 21명 추가 구속기소

▲ **해외 도피한 보이스피싱 총책 등 18명을 국내 송환 및 구속 기소**

-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을 조직한 총책에 대하여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중국 거류허가 연장 저지 등을 통해 불법체류 상태로 만들어 입국한 피의자를 체포·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총 18명의 해외 도피 사범 구속기소

※ '23.4.6.자 [해외도피 총책을 끝까지 추적·송환하여 구속 기소] 보도자료 참조

●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의 적용, 적극적 공소유지 등으로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하여 **'중형 선고'** 이끌어 냄

- 합수단은 '22. 8. 대검이 강화한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등 주범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죄를 적용하고, 공판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양형의견을 개진하는 등 엄정 대응하여,
- '23. 11.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**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, 부총책에게 징역 27년의 선고**를 이끌어내는 등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

※ '23.11.5.자 [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 선고] 보도자료 참조

<합수단 사건 1심 중형선고 사례 >

피고인	가담유형	1심 선고형	피해자	피해금액
ㄱ	콜센터 총책	징역 35년	560명	108억 원
ㄴ	콜센터 부총책	징역 27년	560명	108억 원
ㄷ	콜센터 총책	징역 20년	435명	26억 원
ㄹ	콜센터 관리책	징역 20년	133명	198억 원

● 합수단은 검·경이 초기 압수수색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합동수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, 금감원, 국세청, 관세청, 방통위, 출입국·외국인청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「금융수사협력팀」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지원

- ①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를, ② 국세청은 범행 관련 계좌가 개설된 유령법인을, ③ 관세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한 환치기 계좌를, ④ 출입국·외국인청은 해외도피 사범 및 외국인 사범 관련 자료를, ⑤ 방통위는 범행 이용 통신기기 등 관련 내용을, ⑥ 국정원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정보 등을 분석·제공

- 본건 수사도 검·경 및 ▲금감원과 국세청(범행사용계좌 분석), ▲관세청(환치기 계좌 분석), ▲방통위(중계기·대포유심 관련 자료 분석), ▲출입국·외국인청과 국정원(외국인 조직원 관련 정보 제공·분석) 등이 One Team으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여 합동수사한 성과임

IV

향후 계획

- 합수단은 앞으로도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, 해외 거점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 중계기, 대포유심 및 대포통장 운영조직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, 진화하는 신종수법에 적극 대응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☑

[별첨 1 : 피고인별 공소사실 및 처분내역]

연번	피고인	역할	공소사실 요지	처분
1	A (남, 43세, 중국인)	모집 · 수당지급	- '23. 8.~12. 조직원 2명 모집하고, 조직원 수당을 지급하며 중계소 5개소 운영에 가담, 합계 약 8억 4,100만원 편취 [범죄집단가입·활동, 사기, 전기통신사업법위반]	'24. 1. 26. 구속기소
2	B (여, 37세, 태국인)	부품보관소 관리	- '23. 8.~12. 부품보관소를 관리하며 중계소 5개소 운영에 가담, 합계 약 8억 4,100만원 편취 [범죄집단가입·활동, 사기, 전기통신사업법위반] - '17. 6. 불법체류 [출입국관리법위반]	'24. 1. 26. 구속기소
3	C (남, 27세, 중국인)	부품보관소 관리 · 수당지급	- '23. 8.~12. 부품보관소 관리, 수당 지급하며 중계소 3개소 운영에 가담, 합계 약 22억 1,700만원 편취 [범죄집단가입·활동, 사기, 전기통신사업법위반]	'24. 3. 15. 구속기소
4	D (여, 29세, 태국인)	모집 · 유심보관소 관리	- '23. 11.~'24. 2. 조직원 1명 모집, 유심보관소를 관리하며 중계소 2개소 운영에 가담, 합계 약 7억 3,200만원 편취 [범죄집단가입·활동, 사기, 전기통신사업법위반] - '23. 4. 불법체류 [출입국관리법위반]	'24. 3. 7. 구속기소
5	E (남, 37세, 중국인)	환전 · 수당지급	- '23. 5.~12. 위안화를 원화로 환치기하여 조직원들에게 송금하거나 A에게 교부, 합계 약 8억 4,100만원 편취 [범죄집단가입·활동, 사기, 외국환거래법위반]	'24. 2. 7. 구속기소
6	F (남, 28세, 중국인)	환전 · 수당지급	- '23. 5.~12. 위안화를 원화로 환치기하여 조직원들에게 송금하거나 A에게 교부, 합계 약 8억 4,100만원 편취 [범죄집단가입·활동, 사기, 외국환거래법위반]	'24. 2. 7. 구속기소
7	G (남, 33세, 태국인)	중계기 관리	- '23. 2.~10. 중계소 1개소를 관리, 합계 약 7,900만원 편취 [범죄단체가입·활동, 사기, 전기통신사업법위반] - '23. 2. 불법체류 [출입국관리법위반]	'23. 11. 13. 구속기소
8	H (여, 21세, 태국인)	중계기 관리	- '23. 8.~10. 중계소 2개소를 관리, 합계 약 6억 1,900만원 편취 [범죄단체가입·활동, 사기, 전기통신사업법위반] - '22. 9. 불법체류 [출입국관리법위반]	'23. 11. 13. 구속기소
9	I (여, 24세, 태국인)	중계기 관리	- '23. 5.~10. 중계소 2개소를 관리, 합계 약 1억 7,400만원 편취 [범죄단체가입·활동, 사기, 전기통신사업법위반] - '23. 5. 불법체류 [출입국관리법위반]	'23. 11. 13. 구속기소
10	J (여, 36세, 태국인)	중계기 관리	- '23. 10.~11. 중계소 1개소를 관리 [범죄단체가입·활동, 전기통신사업법위반] - '22. 9. 불법체류 [출입국관리법위반]	'23. 12. 5. 구속기소
11	K (여, 26세, 태국인)	중계기 관리	- '23. 9.~11. 중계소 2개소를 관리 [범죄단체가입·활동, 전기통신사업법위반]	'23. 12. 5. 구속기소
12	L (남, 36세, 중국인)	중계기 관리	- '23. 11. 중계소 1개소를 관리 [범죄집단가입·활동] - '23. 8.~11. 자격 없이 취업활동 [출입국관리법위반] ※ 중계기 설치 전 체포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불입건	'23. 12. 5. 구속기소

13	M (남, 45세, 중국인)	부품 배달	- '23. 10.~12. 중계기 부품 배달 [범죄집단 가입·활동]	'24. 1. 26. 구속기소
14	N (남, 27세, 남아공인)	중계기 관리	- '23. 12.~'24. 1. 중계소 1개소 관리, 합계 약 2억 3,600만원 편취 [범죄집단가입· 활동, 사기, 전기통신사업법위반] - '23. 11. 체류지 변경신고 하지 않음 [출입국 관리법위반]	'24. 2. 16. 구속기소
15	O (여, 28세, 태국인)	중계기 관리	- '23. 12.~'24. 1. 중계소 2개소 관리, 합계 약 13억 4,000만원 편취 [범죄집단가입·활동, 사기, 전기통신사업법위반] - '22. 8. 불법체류 [출입국관리법위반]	'24. 2. 16. 구속기소
16	P (남, 31세, 태국인)	중계기 관리	- '24. 1. 중계소 1개소 관리, 합계 약 6억 4,000만 원 편취 [범죄집단가입·활동, 사기, 전기통신 사업법위반] - '23. 11. 불법체류 [출입국관리법위반]	'24. 2. 16. 구속기소
17	Q (남, 30세, 태국인)	중계기 관리	- '24. 1.~2. 중계소 1개소 관리, 합계 약 6,500만원 편취 - '23. 2. 불법체류 [출입국관리법위반]	'24. 3. 7. 구속기소
18	R (남, 30세, 아이티인)	중계기 관리	- '24. 1.~2. 중계소 1개소 관리, 합계 2,000만원 편취 [범죄집단가입·활동, 사기, 전기통신사업법위반] - '23. 11. 체류지 변경신고 하지 않음 [출입국 관리법위반]	'24. 3. 20. 구속기소
19	S (남, 27세, 남아공인)	부품 배달	- '24. 1.~2. 중계기 부품 배달하며 중계소 3개소 운영에 가담, 합계 18억 2,000만원 편취 [범죄집단가입·활동, 사기, 전기통신 사업법위반] - '24. 1. 체류지 변경신고 하지 않음 [출입국 관리법위반]	'24. 3. 20. 구속기소
20	T (여, 34세, 태국인)	중계기 관리	- '24. 2.~3. 중계소 1개소 관리, 합계 약 3억 2,000만 원 편취 [범죄집단가입·활동, 전기통신 사업법위반] - '23. 8. 불법체류 [출입국관리법위반]	'24. 3. 20. 구속기소
21	U (남, 30세, 남아공인)	부품 배달	- '23. 11.~'24. 2. 중계기 부품 배달 [범죄집단 가입·활동] - '24. 1. 체류지 변경신고 하지 않음 [출입국 관리법위반]	'24. 3. 20. 구속기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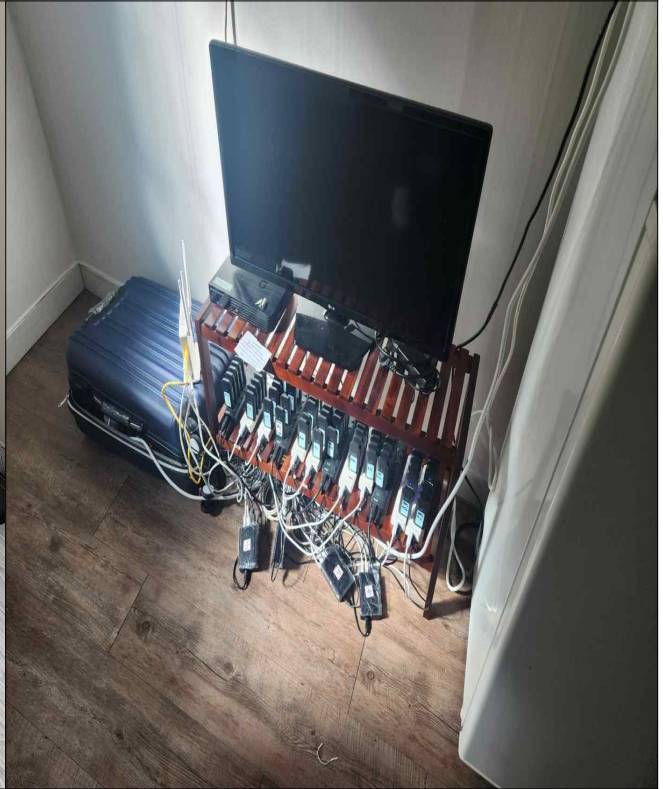
※ 중국 소재 총책 및 간부급 조직원은 계속 추적 중

[별첨 2 : 중계소, 부품보관소 등 현장사진]

중계소 현장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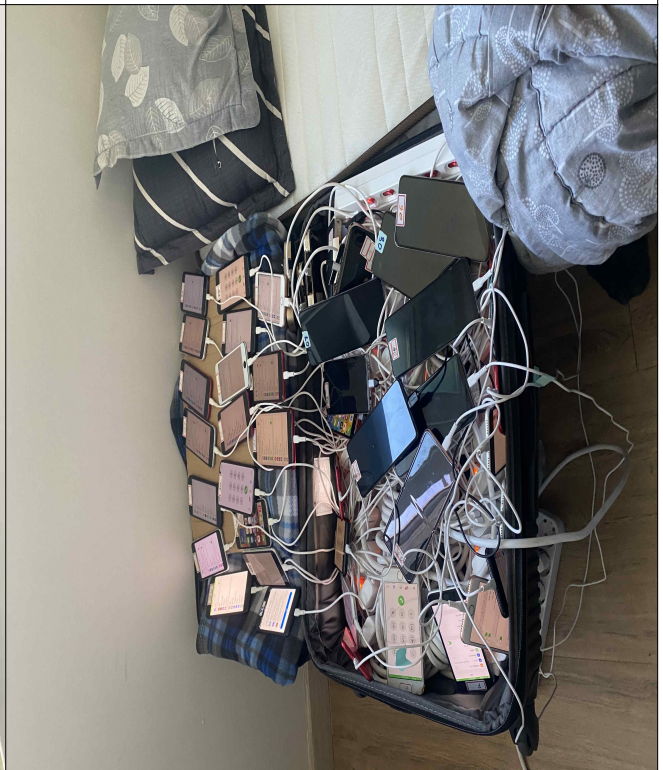
포트형 중계기(구형)



USB형 중계기(신형)



포트형 및 USB형 중계기



휴대폰형(CMC기능) 중계기

부품보관소 현장사진

